

‘교양하다’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책을 읽다보면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내 판에는 영감을 불러오는 글귀를 만날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기억력을 믿을 수 없으니 지면의 모서리를 살짝 접어,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 놓는다. 기억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징표를 만든 것인데, 교육학에서는 이를 파지(把持), 영어로는 리텐션(retention)이라고 부른다. 즉, 꼭 움켜쥐고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최근 한달 사이에 이렇게 파지하고 싶은 말을 꼽는다면 ‘교양하다’가 있다. 먼저 아내가 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낸 게 한 달쯤 되었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도, 경의선숲길을 산책하다가도 ‘칸트의 철학’을 얘기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아내가 몰입해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에 눈에 들어왔다. ‘서양철학은 모두 칸트로 부터 시작한다?’ 인가, 서울대 김상환 교수의 교양강의였다.

그렇게 아내에게서 유튜브로, 다시 김상환 교수의 강의를 통해 지각된 칸트는

필자의 두뇌 어디인가, 마치 책의 모서리를 접어 놓은 것처럼 기록해 두었던 정보의 파편들을 연결시켜주었다. 그게 바로 ‘교양하다’이다.

‘교양하다’는 한국어 칸트전집 19번째 교육학 16쪽에 자리잡고 있다. 사실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이라기보다 번역자인 백종현 교수의 역자 서문에 파리를 들고 있는 단어이다.

백종현 교수는 번역을 하면서 외국어를 익히는 것도 있지만 한국어어를 새롭게 인식하는 행운을 얻는다고 했다. ‘칸트의 교육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교양하다’라는 동사를 새롭게 익혔는데, 스스로 대견한 발견이고, 앞으로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런 글들이 나란하게 줄지어 있는 16쪽의 왼쪽 윗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는 것을, 필자는 그렇게 몇 년만에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교양하다’는 표준국어사전에 어엿하게 자리잡고 있는 표준말이다. 그 뜻은 ‘가르치어 기르다’로 나온다. ‘칸트의 교육학’에서는 독일어 ‘Bildung’을 ‘교양’으로 쓰면서 그의 동사형인 ‘bilden’은 종래에 ‘도야하다’, ‘형성하다’로 번역했던 것을 ‘교양하다’로 바꾸어 쓴다고 했다. 명사 ‘교양’과 동사 ‘교양하다’를 대응시

킬 수 있어서 좋았고, 사장되어 가는 한국어 낱말을 찾아 활용하는 것도 좋은 길이라고 했다.

칸트에게 ‘인간은 교육해야 할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교육은 양육과 훈육, 그리고 교양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인간은 유아-생도-학도가 된다. 칸트의 생존 시기로 따지면 16살에 대학에 갔고, 20대 성년이 되면 교육이 끝난다고 했으니 교양도 양육과 훈육처럼 부모와 교사의 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칸트가 예견했듯 교육은 수많은 세대를 통해 실행되고, 앞 선 세대의 지식들을 전수받는 것이다 보니 교육의 앞 자리에 평생이라는 말을 내어 주게 되었다. 바로 평생교육이다. 양육과 훈육의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 교양은 더더욱이나 평생 해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가 교육학의 원류로 추종했던 ‘무소의 에밀’도 이참에 한번 회상해보자. “성인을 지도하려면 아이를 지도한 것의 반대로 해야 한다.”

그 동안의 교양이 아이를 이끄는 것이라면 성인은 자기주도적으로 교양을 해야 한다. 스스로 소질을 끌어내고 키우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교양하다’이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배우고 익혀도 기쁘지 않은 세상



김 서 현
(산업부)

분명히 공자(孔子)는 배우고 익히면 기쁘다고 했다. 요즘 세상에는 공부 할 일이 너무 많다. 당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 먼저 허겁지겁 공부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다. 도대체 눈감 짝할 새 왜 그리고 많은 새로운 문물이 쏟아지는지.

며칠 전 점심을 먹으러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갔다. 요즘 말로 ‘힙(Hip)’한 곳이었다. 세련되고 고풍스러운 매력도 있어서 청춘 영화에 나올 법 한 인테리어였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자리마다 키오스크가 있었다. 차림표와 키오스크를 겸한 스마

트패드를 둔 곳은 자주 봤지만 자리에서 즉시 카드를 꽂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첫 만남이었다. 심지어 터치페이까지 가능했다. 나와 동행한 IT 트렌드 전문가도 처음 본다며 놀랐다. 나는 더 놀랐다. 이제는 레스토랑에서 직원을 부를 필요 없이 결제 마저 홀로 해내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어라 이 메뉴가 왜 장바구니에 들어간거야?”를 연발하며 주문했다.

음식을 나를 때 한 번을 빼곤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직원과 마주치지 않았다. 매운 걸 먹지 못해 항상 직원에게 매운지 묻고는 했지만, 이번엔 그냥 메뉴에 붙은 고추 그림으로 짐작한 채 시켜 먹었다. 그랬더니 파스타는 매웠다.

낮 시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택시 예약 앱을 끄는 택시 기사가 있다는 이야길 들었다. 택시를 부르는 앱을 쓸 줄 몰라 하얏

이 서있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역이나 다른 기차역과 터미널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약해 매진되다 보니 짐보따리를 든 채 선 노인들이 서성이곤 한다. 다들 터미널에서 우는 노인을 봤다는 이야기에 마음 아파해도, 아픈 마음은 잠시뿐 젊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누리는 편의를 마다 않는 요즘이다.

논어의 첫 장, 첫 구절은 ‘學而時習之不亦悅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다음 구절은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유朋 자원방래 불역락호)’다. 먼 곳에서 스스로 찾아오는 친구가 있으면 또 즐겁지 않은가? 논어 수명이 다 한 모양이다. 배우고 익혔는데 안 기쁘고, 먼 곳에서 스스로 찾아오기엔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다.

/seo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23일 (음 3월 15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삶에는 인과응보가 이루어진다. 48년생 뒤 돌아보면 오늘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60년생 능력이 기회가 주어지지 발휘할 수 있다. 72년생 후배와 거레에서 약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84년생 과거나 현재나 돈이 중요하다.
- 소** 37년생 주변의 말을 경계하 받아들이 줄 알아야 한다. 49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주는 것이. 61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73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85년생 손님이 많이 찾아와 종일 바쁘다.
- 호랑이** 38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늦어도 노력이 우선. 50년생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62년생 변화의 운으로 판단이 필요. 74년생 어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 86년생 세상의 인정은 돈 있는 집으로 쏠리는 듯.
- 토끼** 39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옷이 일이 손조름게 풀린다. 51년생 불만이 있어도 가족에게 내색하면 더 피곤. 63년생 동료와의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75년생 더위도 지치지 않도록. 87년생 재물이 느니 먼 친구까지 찾아온다.
- 용** 40년생 선과 의에는 유혹도 따르기 마라. 52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두 배로 나간다. 64년생 지방에서 반가운 소식이 오니 고민이 해결. 76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서 명세가 높아진다. 88년생 운동을 꾸준히 하여 활기차다.
- 뱀** 41년생 명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할 때. 53년생 목적지에 도착하는 좋은 날. 65년생 지나온 길에는 아쉬움을 두지 마라. 77년생 바둑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함을 얻었다. 89년생 꽃이 만발하니 마음도 상생생생 갈피를 못 잡는다.
- 말** 42년생 건강을 챙겨야 한다. 54년생 내 것이 비록 작아 보이나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 66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와 위로를 준다. 78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90년생 하루는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다.
- 양** 43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해야 할. 55년생 우물거에서 송 송 찾지 말고 모든 일은 순서대로. 67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79년생 불이 왔으니 곧 꺼지고 꽃이 필 것이다. 91년생 오후 원형을 갈 일이 생긴.
- 원숭이** 44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문제가 없다. 56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68년생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좀 더 노력하면 성공이 보인다. 80년생 거울은 먼저 옷지 않는다. 92년생 술이런 묘한 음식이다.
- 닭** 45년생 소나기 온 뒤의 상쾌함이 기분 좋게 한다. 57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69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니 무슨 일든 참여하는 것이 좋다. 81년생 인정이란 오고 가게 마련이다. 93년생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다.
- 개** 46년생 불행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니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58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70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말조심. 82년생 공부는 지식에 대한 투자다. 94년생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즐거운 화창한 날이다.
- 돼지** 47년생 자신을 아는 것은 소소하나 위대하다. 59년생 뜻밖의 초대로 하루가 즐거우나 유혹하는 것이니 주의. 71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 낭패를. 83년생 친한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생을 헛산 것 같다. 95년생 작은 화로 큰 화를 막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기성종교와 무속

기독교 천주교 불교등 기성 종교들은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가 공휴일로까지 정해진 성인들의 탄생일 신앙생활 중에 납부한 헌금이나 보시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신부와 사제 등 종교인들은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으며 정신적 스승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제도적으로 견고하게 혜택과 지지를 받기에 그러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민간신앙으로 함께 해왔던 무속인들은 어떠한가. 무속이라는 특성상 제도적 인정과 지원을 받는 것이 수월치 않음이나 급한 일이 생기면 당장 달려가 의지한다.

그러면서 미신을 믿는 사람으로 치부될까 하여 비난한다. 오히려 부정하는 태도는 고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비치고 싶은 인간의 이중적 민낯이라 해야 할까. 신점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빙해 내기도 힘들고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밀접한 접점을 밀바탕으로 하다 보니 나름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기성종교 제도권 적인 종교의 폐해는 그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엄청난 살상과 반목을 가져온 이슬람과 기독교권의 투쟁은 현재진행형인 것이 그 방증이다. 큰 만신 무형문화재 김금화선생에 대해 생각해 잠גיע 한다.

그분은 1982년 7월 미국 뉴욕 파크에비뉴에서 칼날 위에 맨발로 올라서서 굶판을 펼쳤다. 2003년엔 뉴욕 링컨센터 초청으로 9·11테러 참사를 위로하고자 대동궁도 펼쳤다. 무형문화재 말 그대로 문화의 한 유형으로만 인정한다지만 인간 내면의 심연을 두드리는 혼과 혼이 연결되어 순결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가장 가깝게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함께 해온 것은 척하는 제도권 내의 성직자들이 아니라 편하 속에서도 속명처럼 신명을 받아들인 무속인들이 아닐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1	8	6	7	4			
	8		6					
	4	9	1					6
							8	
6	1	8				9	7	2
	2							
2				7	6	9		
			8		2			
5	4	9	2		1			7

6		3		4	2	8		
3		7	8	4				
8								
	1	4		5		9	2	
	5					4		
1	6		8		9	7		
								5
			5	9	1			3
5	7	6			3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9	1	2	3	6	7	8	9
7	2	8	6	9	9	2	1	
8	6	9	1	7	9	8	2	
8	9	7	1	9	8	1	2	6
2	1	6	7	9	8	1	9	
1	8	9	6	8	1	2	9	7
9	8	8	1	1	6	7	9	
6	1	2	9	7	9	8	1	
9	7	1	9	8	2	1	6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41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2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